

## 제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제1차)

1. 일시:1955(4288)년 7월 11일

2. 장소:의회 의사당

3. 의회성립

1. 참석의원:12명

朴贊圭, 李小圭, 明南喆, 孫白洙, 金京炫, 鄭應杓, 李在洪, 金南鎭,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陳福春

2. 불참의원:9명

金三星, 林一男, 金八用, 文宅鎬, 金吉煥, 金昌賢, 李文吉, 李在洪  
金慶禧

3. 참석한 공무원

市長 이하 各 課長 8명

4. 개회선언 : 朴議長

(오전 10시 35분)

◇議長

-삼학도 축조공사 착공이 7월초 4일에 있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감개무량함을 불금함과 아울러 장기간의 시정 감사에 있어 각 의원의 건강에 유임하여 주시라는 개회사가 있었음

5. 보고사항:

1. 제38회 제5차 및 제6차 회의록 낭독 통과

※ 오전 10시 45분 金昌賢의원 참석

※ 오전 10시 47분 金八用의원 참석

◇李在洪의원

-현하 긴급한 수도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포시민의 부담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하 수도물 관계로 시민들이 물을 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나 수 백명 시민들이 시청 앞으로 와서 물을 달라고 데모를 한 광경이나 1열로 줄을 지어서 물을 얻으려고 일대 수라장을 일으키고 있는 광경을 16미리 영서기나 또는 사진기로 촬영하여 휴대하여 틀 중앙요로에 효소하기에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니 시장님과 시의원측에서는 2명이 상경하여 구호 원조를 받도록 요로 당국에 진정차 상경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3청,---7청)

(인선 문제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표결 결과 재적 14명 전원 찬동 가결

◇金永完의원

-수도 관계로 중앙에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과거 상경시에 드른 경로가 어떠한 것인가?

◇建設課長 李福柱

-C A C 렐이스씨와의 면담 요지의 내용 보고가 있었음

◇朴議長

-긴급 동의를 인선에 있어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吳世一의원

-당시 문화시설로 하여 극장이 2개소 있는데 그중 1개소 평화극장이 폐쇄중이니 이대로 방치 한다면 시민의 문화기관 활용에 있어 지장이 불선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개관 하도록 하기 위하여 3명의 절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

(인선은 의장에게 임임)

(재청,----7청) 표결 결과 재적 14명 전원 찬동 가결

◇議長

-인선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 6. 부의안건:

### 1. 삼학도 착공 감사문 결의 건

◇鄭應杓의원

-삼학도 착공에 대하여 상공부장관, 내무부장관, 부흥부장관, 인접출신 민의원, 신성모씨, 전라남도 지사 및 국장, 건설과장, 해무청장, 핸리주교, 내무부 시설국장, 향만청장, 토목국장, 토목국 김동호 이사관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목포시장 및 의장 명의로 감사문 발송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적 14명 전원 찬동 가결

### 2. 제6회 시정 감사반 편성의 건

◇鄭應杓의원

-제6회 시정 감사반 편성에 있어 총 지휘를 朴議長으로 하고 반편성은 각자 지원으로 할 것을 동의

표결 결과 재적 14명 전원 찬동 가결

(반편성 별표 첨부)

◇議長

-회의록 서명에 金子洪, 金八用의원을 지명

◇폐회선언

-議長

(오전 12시 2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7월 10일

議長:朴 贊 圭

議員:金 子 洪

” :金 八 用

作成者 書記:洪 南 植

◇ 別表

第1班:金南鎭, 李在洪, 金永完, 金八用, 李福柱

第2班:李文吉, 金慶禧, 金三星, 金昌賢, 金京炫

第3班:陳福春, 金吉煥, 文宅鎬, 林一男

第4班:明南喆, 吳世一, 李小圭, 鄭應杓, 孫白洙, 金子洪

補助員: 第1班:洪南植

第2班:牟七根

第3班:梁志洙

第4班:金鐵洙

## 제3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제2차)

1. 일시:1955(4288)년 8월 1일

2. 장소: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16명

朴贊圭, 李小圭, 金八用, 金南鎭, 金永完, 金吉煥, 陳福春, 林一男,  
李文吉, 鄭應杓, 李在洪, 金子洪, 李福柱, 明南喆, 吳世一, 金慶禧

2. 불참의원5명

金昌賢, 孫白洙, 金三星, 金京炫, 文宅鎬

3. 출석한 공무원:9명

市長 河東鉉 및 各 課長, 教育監 申鉉仲, 庶務課長

4. 개회선언

(오전 11시 10분)

※ 오전 11시 13분 金昌賢의원 참석

5. 보고사항:

1. 제39회 제1차 회의록 낭독 통과

2. 삼학도공사 착공에 대한 감사문 발송 경과 보고

### 3. 정부미 방출 건의차 상도한 경위 보고

#### ◇吳世一의원

-상도한 결과 보고 있었음

#### ◇李在洪의원

-중앙으로 수도 관계로 건의차 출장 중 정부미 방출 문제 및 수원지확장 문제에 대하여 결과 보고가 있었음

※ 오전 11시 28분 金吉煥의원 퇴장

### 4. 평화극장 개관 교섭 보고

#### ◇鄭應杓의원

-교섭 보고가 있었음

#### ◇金南鎭의원

-현하 목포시내 각 중고등학교가 점차 용당리 및 일로면 근방으로 이축중에 있어 1일 수만명의 학생이 현 산정3구동 답절을 경유하여 통학하고 있어 그 도로는 협소한 관계로 교통사고의 기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도 폭 8m의 도로를 확장시켜야 하겠으나 빈약한 시비로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일방 도로를 하여야 된다.

즉 차로 말하자면 우측통행이 원칙이라 목포서 간 차는 답절을 경유하고 목포로 들어온 차는 현 농업기술원에서 형무소 앞문을 통하여 목여고로 연락된 국도를 이용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할려면 목포시장과 경찰서장이 합의하여 도 경찰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국장과 교섭하기 위하여 먼저 교통사고 방지 사업추진위원을 선정하되 의회측에서 3명, 행정부측에서 2명으로 하고 학생전용도로로 한다던가 일방도로로 한다던가 또는 우측으로만 통행한다는 것을 검토하여 실지 답사하여 이 모든 문제를 토의하여 다음 본 회의에 상정하여 결정 하기로 긴급 동의

(재청, 3청,-----7청)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 행정부는 시장에게 일임)

표결 결과 재적 16명 가 14표 가결

(議長은 金南鎭, 李福柱, 金子洪의원을 지명하였음)

## 6. 부의안건:

### 1. 동목포역 승격에 관한 건의문 발송의 건

#### ◇金子洪의원

-본 건 목포역의 발전은 점차 동 목포 부근으로 집중되어 명약관화한 사실로서 동 목포역을 보통역으로 승격 시킴으로서 그 영향이 지대 하므로 보통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로당국에 건의할 것을 동의  
표결 결과 전원 찬동 가결

### 2. 삼학도공사 기공식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정응표의원

-본 건 행정부와 직접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서 5명 선출하되 선정에 있어서는 의장님에게 일임기로 동의  
(재청, 3청)

표결 결과 재적 16명 전원 찬동 가결

### 3.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동정 특별회계,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배열 변경의 건

#### ◇제안자(자료미상)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표결 결과 재적 16명 전원 찬동 가결

#### ◇휴회선언:議長

(오전 12시 30분)

◇속개선언:議長

(오후 2시)

4. 기공식 준비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위원으로서 議長, 副議長, 吳世一, 李文吉, 林一男, 金吉煥의원을 지명 단, 議長은 협조기로 만 하기로 됨

5. 인접군 포섭에 대한 비밀회의 개최의 건

◇金南鎭의원

-본 건 목포시의 발전과 확장을 기하기 위하여 무안군 일로면과 영암군 삼호면을 포섭하기 위하여 본 회의가 끝난 즉시 비밀회의에 들어 갈 것을 긴급 동의

(재청, 3청,-----7청)

표결 결과 재적 16 전원 찬동 가결

6. 시정 감사 보고의 건

※ 본 건 각 감사반장 金南鎭, 陳福春, 鄭應杓, 金昌賢의원으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음

◇第1班 金南鎭의원

-총무과는 대단히 양호하다.

단, 관재계에서 사용로 징수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망한다.

호병과는 과거와 달라 확고한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호적 및 기류부에 대하여 공사간에 구별을 하여 서류감독을 할 것

재무과 부과제도 공정한 사무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본다.

징수계에서는 대체로 양호 하였으나 몇몇 직원의 잘못이 있었으나 1952(4285)년, 1953(4286)년도에 비교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정리계는 다소간 쇄신할 점이 있었으나 조속한 소일내에 쇄점될 것으로 믿는다.

다음 체납처분 중지표 작성에 있어 그 지방 출신 의원이 실정을 잘아니 1차



상의하여 처분하기를 바란다.

죽교5구동에 있어서 동직원의 질적 향상과 동정세 불입에 있어서 정확하기를 바란다.

유달동에 있어서 금전처리에 있어 일일이 수입 결의소에 불입증을 첨부하여 있음은 타 동의 모범이 될 점으로 사료한다.

단, 서무 관계에 있어 조금 더 연구를 하여야 되겠다.

대성1구동에 있어서 질적 향상이 되어 있고 동민에 대한 친절을 도모하고 있어 타 동의 모범이 됨으로 칭찬있기를 바란다.

북교동 대체로 양호하나 동민 민원서류는 신속 정리를 요망한다.

죽동에 있어서는 동정세 경리 상황에 있어 예금통장과 차이가 있어 시정할 것을 전 감사시

지시하였던바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유감 지사이니 조속히 시정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발언

#### ◇金永完의원

-작년도 시정 감사시 지시한 점에 있어 시정을 가한바 있으나 그 실천을 안봄은 의결부의 결의를 무시한 것이다.

다음 서류상에 副市長 날인(호남동 문제)이 무일함은 인화에 결함이 있다고 보면 민원서류를 10일 이내에 가부간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류한다는 것은 유감지사다.

다음 국채 문제에 있어 전반 의회에서 언급한 것에도 불구하고 또 제7회 국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채를 받는 다는 것은 유감이니 간부급에서 직접 조사하여 주기 요망한다.

정리계는 시청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목포시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정리계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서류상으로 질의 사항을 낼 것입니다.

#### ◇第2班 金昌賢의원으로부터 다음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사회계: 副市長 부재시는 총무과장이라도 대결하여 놓을 것을 바란다.

노무계: 대체로 양호하나 일반 노동 행정사무와 노무동원 사무의 폭주로 직원 4명 이상이 긴요한바 주무자 1명으로서 앞으로 노동사무 치진이 유려 되오니 시급히 증원을 요망함

직업소개소: 내용은 충실하나 예산이 전무한 관계로 유명무실한 사업장 일을 면치 못할 형편이니 도 보조만 믿고 할 것인가?

혹은 시서 예산을 줄 수 있는가?

만약 방안이 무한다면 폐지함을 요망

보건계: 방역사무에 관하여는 약 부족으로 인하여 하절기에 이르러 왕왕 전염병 예방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경향이 농후하나 소독약 배급처인 KCAC또는 도 당국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경상하여 방역약 등 구입하여 철저한 방역 실시를 요망함

창소사업소: 사료배 급량이 부족되어 시 판매 가격으로 다량을 구입하는 바 앞으로는 배급량으로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망함

대성병원: 비품 수불 및 약품 처분시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토록 할 것

시립병원: 대성병원과 여함

도서관: 실내가 복잡하다

복잡치 않도록 보도회와 합의를 볼 것

공익전당포: 도난당할 우려가 있으니 우측에 담 또는 철조망을 만들 것

현재 좌측에 있는 창고가 현재 시장내 식당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래 공익전당포에 따른 창고임으로 반환시켜 공익전당포에서 사용토록 할 것

현재 입화물 보관 창고 입구문 내곽에 철망문을 만들어 공기를 유통 시킬 것이며, 내부 온도 등을 환기 시키도록 할 것

현물품 보관창고 집을 수리할 것

사업소에 비품이 무하니 비품을 환비할 것

각 동 사무소는 일괄컨대 근무시간 한계가 막연하고 직원이 부족하다.

(죽교2구, 3구동)

교육청,

1955(4288)년 1월부터 6월말일 까지 6개월간의 접대비가 20여만환인데 매월 3만5천환 정도이니 과한 감이 있다.

교육청에서 공공 구입하여 각 학교로 배당한 물품이 각 학교 소모품 대장 또는 비품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학교가 허다하며 또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교육청서 할당한 수량과 각 학교 수배 수량의 차이가 심하다.

또 물품 구입처에 유령 구입처가 2, 3개소 있으며, 이러한 유령처에서 물건 구입한 것만 하더라도 기십만원에 달하니 차후 이러한 곳에서 물품구입 등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며, 또는 국민학교비로 지불하고 교육청 소모품을 구

입 소비 하였으니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 책임을 교육감이나 과장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도 예비비를 유용 하였으니 당초 의회 의결을 안받던가?

또 징수 방법이 불공평하며, 차압에 있어서 편파적이다.

동명동, 대체로 양호하나 동내에 공동 변소가 필요하다.

무안동, 동장이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동 행정 사무 집행상 다소 불편한 감이 있으니 동구역내 거주토록 할 것

동 직원의 발령 당시의 성명과 해임시의 성명이 상이하다.

시 당국의 사무 처리에 유의할 것

※ 중앙초등학교 건축 관계 보고 내용

◇金永完의원

-세세한 점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金子洪의원

-영선 관계에 있어서 계사 닭집 하나에 70,000환이 소요 되었는데 25,000환이면 지을 수가 있다.

여사한 모순에 비추어 철저한 감독을 요망 한다.

◇第3班 陳福春의원

-다음 요령의 감사 보고가 있었음

양정계: 대체로 양호하나 동직원 식량 문제에 있어 미수금이 많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 하도록 할 것

상공계: 상공 도시인 목포시의 상공계로서는 미약하다.

일례로 공설시장은 당연 상공계를 통하여 사무를 추진하여야 될 것인데 하등의 연락없이 직접 상관에게 절충하고 있다.

여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할 것이며, 상공계의 예산이 적으니 고려 있기 바란다.

수산계: 상공계와 같은 입장이며, 석화 양식장시설 지도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고려 있기를 바란다.

도축장(축정계):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에 배치 않 되도록 유의 할 것

죽교동시장: 시장장의 적극성 있는 활동을 요망한다.

남교동시장: 시장내에 저축계가 있어 활동이 대단함은 찬양할 바 있다.

연동시장: 시장 확장을 요망한다.

다음 동사무소 사무 감사에 있어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동장과 동 직원의 유기적인 활동을 요망한다.

동 고문을 시에서 위촉한바 있었는데, 이 취지를 활용치 않고 모 동에 있어서는 동 고문이 무엇인지 모른 동도 있다

특히 유의하도록 요망한다.

동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는 필히 동장은 남아 있어 동민의 편리를 보아

주도록 요망한다.

(서산, 산정1, 2, 용당, 영해동)

#### ◇第4班 鄭應杓의원

-다음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수도계: 1954(4287)년도에 74건의 신설, 개설 공사가 있었다.

중앙동과 변두리동과의 수도시설공사가 불균일하여 작년도 사무감사시 시정을 하여 주라는 요망으로 하였는데 금년 74건에는 1건도 변두리동에는 해당이 안된다. 여사한 점은 특권 계급이나 친척간에만 혜택을 준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공사대장에는 시금고 불입증이 첨부 되었는데 회계대장에는 들어오지 않는가 영수증이 첨부되어 주무자, 과장도 모르게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금액은 8,900환인데 믿지 못할 시금고에다가 시수입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려된다.

#### ◇金子洪의원

-도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 요지가 있었음

포장도로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다.

도시계 증원과 도로 공부도 필요하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이 허다하니 관심 있기를 바란다.

또 연동으로 목포시가 발전하여 가는데 시가지 계획에 위반이 없도록 할 것  
각 동사무 감사는(남교동, 대성동, 북교2구동, 산정3구동)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

◇明南喆의원

-일반회계와 해선장 관계를 다음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해선장 유류 관계에 있어 구입 방도가 막연하여 암거래를 하여도 상공계에  
서 상당한 티켓을 끊어 왔는데 실지 사용한 것을 보면 고가로 구입하고 있  
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 하  
겠다.

◇金永完의원

-다음 요리의 발언 내용이 있었음  
건설과로 서류를 제출 하였는데 1개월이 되어도 처리를 안해주니 유감이다.  
또 국채 관계도 제7회 국채를 받고 있는데 여사한 일이 앞으로 없기를 요망  
한다.

※ 오후 3시 50분 李在洪, 林一男의원 퇴장

◇鄭應杓의원

-본 시정 감사 보고에 있어 종결짓고 이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부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내 16일 보고할 것이며, 질의 응답도 16일 행하기로 동  
의  
표결 결과 재적 14명 전원 찬동 가결

◇副市長 司會

-아래와 같이 강평이 있었음  
사무 감사는 행정부를 협조하고 돕는 것이 사무 감사의 목적이라고 본다.  
과거 시장과 시의회 간에 불화한 점이 있었고 수반하여 시의회와 행정부간  
에 혼연일체가 안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의 각 간부가 상호 협조하여 시장님을 받드리 전 심정을  
경주하여 시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대단히 경하할 바 있다.

느낀바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으로서 충실하며, 그 맡은바 의무를 다하여야 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의무로써 비밀을 보지함이 지당하다고 사료한바 청내 비밀을 외부에다 누설하여 모략중상 허위낭설은 도저히 불가 상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의원으로써 임기까지의 의원생활에 있어서 시 행정부를 협조하고 나아갈 각오이며, 또 우리 의회로서도 정치적인면을 떠나서 행정부를 협조하여야 될 것이다.

최근 야당, 여당 하여 구별은 있지만은 모두 다 국가 민족을 위한 투쟁이요, 우리는 자기를 위여서라는 심정을 버리고 공정히 공무를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와 의결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건설적인 사업에 주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副市長

-회의록 서명에 金永完, 金昌賢의원을 지명

◇副議長

-폐회선언

(오후 4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8월 4일

副議長:朴 贊 圭

議員:金 永 完

” :金 昌 賢

作成者 書記:洪 南 植

## 제3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제2차)

(오 전)

◇副議長 李小圭

-에 —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副議長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아서 가름 하겠습니다.

에 — 현재 사회자까지 16명 참석으로 오늘 회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회중이니 이대로 속개해서 회의 진행에 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첫째, 제39회 제1차 회의록을 통과 하겠습니다.

◇書記 박찬대

-제39회 제1차 회의록 낭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낭독해 들인 회의록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별 이의 없으시면 통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하여 주십시오.

◇副議長

-순서를 바꿔서 삼학도 공사 착공에 대한 감사문 발송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문 발송 경과 보고가 있었음)

◇副議長

-감사문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다음 정부미 방출 건의차 상도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가가 천정 불지의 양등으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각도시에 정부미 방출을 하는데 목포만이 빠져 있어서 도에 건의 요지를 당시 가신 의원과 또 중앙에 다른 일과 겸해서 갔던 경위 보고를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도에 가신 경위를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吳世一의원

-전반 6월 30일 광주에 농림부차관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의원과 산업과장이 상도하여 익일 오전 4시반에 여관으로 차관을 방문하고 약 20분간 이야기 하였는데 차관의 하는 말씀이 역시 목포의 실정은 잘 아나 목포만을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방출하도록 중앙에 가서 노력 하겠다고 말하고 강진과 영암, 여수 등지를 경유하여 목포에 오시겠다고 하시기에 내려와서 익일 낮에 도 산업국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차관은 안 오시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나주까지 오시다가 중앙에서 무전이 있어서 돌아 가시었다는데 하시는 말씀이 마산, 군산, 목포 등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해선 특별히 고려 하시겠다고 하시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副議長

-상도 경위를 吳世一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의원께서 중앙에 가신 경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李在洪의원

-이 제목은 정부미 문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갔던 것은 그 외 전부 한번에 보고 하겠습니다.

거반 金八用의원과 市長님을 모시고 1차 서울을 올라가서 삼학도 공사에 공로가 많으신 토목국장 金이사관과 신성모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공로가 많으신 분에게 인사 말씀을 들이고 공익전당포 1,000만환 용자를 얻기 위하여 재무부 이재국과 조흥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용자를 받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출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건의서는 먼저 차관이 재무부장관이 되어서 양정국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건의서는 농림부 차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의 말씀이 금년도 10월까지 방출할 양곡이 40만석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만 주다가 그 후 중앙에서 도청 소재지에 주기로 하였다



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청주나 춘천, 제주같은 데는 도청 소재지라고만 하였지 인구 5, 6만에 불과 하는데 이런 도시에는 방출 하면서 10만이 넘는 도시에 방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조로 부당성을 주장 하였으며, 광주는 도청소재지로서 목포와 비교하면 인구 2, 3만의 차이가 있는데 단사(單事) 비밀상 확실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상무대 인구가 2만 이상이 될 것이며, 농토가 목포의 몇 배가 되고 공무원이 목포의 몇 배가 될 것이며, 이로서 단조량미가 많이 나오고 공무원 식량배급이 나오고 농사의 생산이 많고 하는데 비하여 목포는 순전 소비도시인데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다음 농림부장관께서 말하기를 정부에서 각 도시에 방출할 것을 막상하고 각 도에 몇 가마니씩 할당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배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지사가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농림부장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건의문에 일필(一筆)을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전정서가 나왔으니 전라남도 지사에게 잘 고려하여 주도록 할 것을 역설하였더니 농림부장관은 말하기를 그런데 목포 뿐만이 아니라 여수, 군산 등이 있는데 목포만 이러한 것을 써 주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안군 출신 유옥우의원께서 오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모래 농림부 예산 심의가 있으니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포에 방출할 것을 역설하고 마산 출신 김종선의원 역시 소비 도시에 방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실정을 들어 이야기한 결과 농림부장관께서는 할당량 200가마인 데 400가마 더 응분량을 보내겠다는 것을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 수원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본 의회에서도 결의한바와 같이 첫째로 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물 문제로 서울을 상경하기 전에 2,300미리의 비가 와서 저희들이 물 문제로 활동하는데 커다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운동 역시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16일이나 17일 상경 일자를 변경하여 본 의원은 14일날 市長님과 金八用의원은 3일 늦게 17일 날 상경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4일 올라간 것은 정책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미

리 올라가서 중앙에 있는 중요 신문 즉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사에 들러서 목포에서 가지고 갔던 물을 받아먹고 싸우고 있는 장면을 16미리 필름으로 촬영할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보통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하영튼 신문에 먼저 내어 주십시오.

하고 물 1드럼에 1,000환이 가며, 물을 받기 위하여 폭행을 하고 싸우는 장면등을 설명하고 지금 현재 목포의 수도 시설은 30년전에 5만 정도의 시민만이 먹을 수 있는 시설 이었다는데 지금의 인구는 15,6만에 달해서 도저히 물이 부족하여 송수관이 파괴 되어서 위생적으로도 대단히 나쁘다.

(중략)

첫째, 목포에 수원지를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는 지하수를 올려야 할 것인데, 첫째문제인 수원지를 만들려면 1955(4286)년도 예산으로도 7억을 요하는데 이것은 급히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 둘째문제인 양수를 첫째문제로 하여 이르면 삼향에다가 지하수 저수시설을 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건설과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토목국장님 말씀이 그러면 주민의 양해를 얻고 송수관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KCAC 기술자와 같이 현지를 답사 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갔을 때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무안군 출신 유옥우의원과 목포 일보 사회부장 이돈채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들이는 바입니다.

◇副議長

-각 의원께서 보고를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사회자로서 외람한 말씀입니다. 만은 유옥우의원과 이돈채목포일보사 사회부장에게 우리 의회로도 심심한 감사를 들이는 바입니다.

더욱이 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금차 이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삼학도공사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착공 하였으니 이 수도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끝까지 기회 있는대로 성심 성의로써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평화극장 교섭차 상도하였던 교섭 경과보고를 의원께서 말씀 하여 주십시오.

◇鄭應杓의원

-평화극장 조속개관 교섭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당시에 두 개 밖에 없는 극장이 최근 평화극장이 손씨와 서씨의 사이에 재판을 하고 있는 관계로 폐문이 되어 가지고 있기에 전반 본 회의 결의에 의해서 상도하여 가지고 관계 당국과의 조속한 시일내에 개관할 것을 요청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이것을 직접 관계하고 있는 내무국장을 만나서 이야기 하였더니 벌써 내무국장은 목포시의회에서 결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략)

지사의 서울 출장중 임으로 지사의 확답을 듣지 못하였으나 내무국장은 행정 조치로써 관리자가 누가 되던지 간에 조속한 시일에 시장님과 타합하여 개관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전 목포시장 이었던 문교사회국장도 역시 동정의 뜻을 표하며 8월 1일의 국장 회의에 안건으로써 상정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거반의 국장회의에서 이미 어떤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副議長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행정 조치로써 있습니까?

(시장님과 합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金南鎭의원

-에 — 여러 의원들 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은 지금 현재 연동공설시장으로 가는 후미기리 도로가 대단히 복잡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국민학교를 비롯 하여 여러 학교가 있으며, 겸하여 국도인데 길 폭이 좁아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국도에 대한 사고방지 원칙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체로 원칙은 도시도로의 폭은 8m가 되어야 만이 차가 맘대로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후미기리부터 연동시장까지의 도로 폭은 겨우 6m 이어서 차가 자유롭게 교체할 수 없으며, 수 많은 학생들과 일반민의 내왕으로 인하여 교통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산정학교의 아동만 하여도 3,600명이며, 앞으로 각 학교의 이축으로

인하여 이 국도는 가일층 복잡을 떨 자체에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도로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시로서는 그런 예산이 없고 하니 이 도로를 통한 일방로를 사용 하였으면 하겠습니까.

즉 그렇게 된다면 지금 목여고 앞에서 형무소 앞을 지나서 농업기술원 앞을 지나서 갔으면 하겠습니까.

즉 그전 국도를 다시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 도로를 사용하여 우측통행을 하므로써 교통 사고를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대체적인 총계를 본다면 학생수가 5,000명 또 기타 일반 시민이 12,000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통행 인수는 10,000명에 달하며, 통행차는 하물차가 60여대, 기타가 40여대, 우마차가 70여대 합하여 1일 200여대의 차가 통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일방 도로를 사용하므로써 사고의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목포시장님과 목포경찰서장이 합의 하여 도 경찰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섭위원 3명을 선정하여 가지고 경찰국장에게 교섭하여 가지고 이 복잡한 도로의 사고 방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거리 관계를 본다면 현재의 국도가 이로 석현리까지 6,500m이면 형무소 앞을 지나서 가는 것이 7,500m입니다.

그러나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의장님으로 하여금 교섭위원 2명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이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소란

※ 의장 하는 이 있음

◇鄭應杓의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대는 그 내막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좁아서 실지로 자동차가 교차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안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副議長의 말씀과 같이 이르면 석현리 뒷산길 고개 넘는 곳이 허물어져서 도저히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형편인데 이 길을 사용하려면 그 도로를 고쳐야 할 것인데 그 도로는 누가 고칠 것인가?

저희들이 고칠 것인가?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포시에 발전을 위한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목포는 아시다시피 서편으로는 발전 할 수 없고 단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로면을 목포에 합하자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하 소란)

◇金永完의원

-金南鎭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 하였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그렇게 좁은 관계로 산정국민학교와 이로국민학교 아동에게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두 사람하고 의결부에서 세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가지고 천독근씨 공장 부근 도로와 석현리 뒷산 도로를 실지 답사하여 가지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성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金南鎭의원께서 말씀 한바도 있으며, 앞으로 목포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 의회에서 의원 두 사람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개의 합니다.

◇副議長

-긴급 동의에는 개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요?

◇金南鎭의원

-방금 석현리 도로가 나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이로면장과 서보안계장과의 상의 하였는데 대단히 찬성 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석현리도로는 만일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이로부터 자진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등에서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副議長

- 金永完의원 발언을 복창 하면서 찬성의 뜻을 포함

◇金永完의원

-아까 저의 개의를 철회하고 金南鎭의원이 그렇게 고치니 말씀하여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金南鎭의원

-그러면 긴급 동의를 수정 하겠습니다.

즉 행정부에서 전문직원 두 사람과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도로와 토목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써 세 분을 본 도로 사고방지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李福柱의원 발언 기록 불능

◇李在洪의원

- 金南鎭의원이 말씀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통행 하니까 자동차가 위험하다 하는데 나도 동의에 찬동은 하나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람과 자동차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는 자동차와 오는 자동차를 따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할려면 한마디로 합시다.

서울을 가 봤는데 서울은 차도 많고 복잡 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모두 저쪽으로 이축 된다고 하였으며, 또 목포의 발전은 저쪽에 있으며, 시장도 중앙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저리 나가면 복잡하니까 전차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의 발전은 복잡한데 있는 것입니다.

◇陳福春의원

- 金南鎭의원의 말씀이나 李在洪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즉 金南鎭의원의 말씀은 일방 도로를 사용하자는 것이며, 李在洪의원의 말씀은 차도와 인도를 별도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차도 부근의 주민들은 차만 타고 다녀야만 하겠습니까?

(폭소)

그렇게 된다면 있는 사람은 좋지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金南鎭의원의 말씀과 같이 사고방지 추진위원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鄭應杓의원

-본 건 추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문위원 5명이 모든 문제를 토의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동이집에서 받아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議長

-여러 의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발전지대에 그 자동차의 왕복이 없음이 없습니다.

이 앞으로 목포시가 발전해 나갈장소는 연동과 용당동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복잡하다고 해서 금지한다는 것은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 다음 추진위원회에서 잘 고려하여 주십시오.

◇李福柱의원

-긴급 동의의 첨가 말씀 들이겠습니다.

실은 사실상 거기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계에서 말하기를 거기에 학생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시에서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동원 하여서라도 연동 파출소 앞 다리에서 뺄발 저쪽 목중 있는 곳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참작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주었으면 하겠습니

다.

◇李文吉의원

- 아까 金南鎭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나는 찬성해서 참고로 말씀 하겠습니까.

金南鎭의원께서 다른게 아니고 이 도로가 좁으니 오고가는 차가 교차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형무소 앞을 지나서 가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차가 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도로도 그다지 넓지 않으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점 잘 생각하여 주시오.

그리고 학생 도로를 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吳世一의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로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副議長

-긴급 동의집 첨가 받겠습니까?

◇金南鎭의원

-수락 하겠습니까.

◇副議長

-건설과장 행정부로서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建設課長

-행정부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는데 거반 중앙에서 전라남도는 순천에다가 100만환 내지 150만환으로 도로 공사를 착수할 것이라는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내년이나 내명년에는 될 것입니다.

◇副議長

-金南鎭의원의 긴급 동의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4명으로 긴급 동의가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 지명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 후 전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서 지명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부의안건으로 들어가서 동목포역 보통역 승격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전체의 낭독이 있었음)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書記 박찬대

-이 건의건에 대해서는 이문길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또 몽리 주민 산정1, 2, 3구동, 용당동 소재 관공서 기관 단체의 요구가 있고 목포역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문은 이미 당국에 발송 되었으니 의회로서 발송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삼학도공사 기공식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8월 30일 경에 기공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관계도 있고 중앙에서 오실 손님도 있고 하니까 의결부와 집행부가 같이 손을 잡고 준비하여 가지고 기공식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기공식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 ◇金子洪의원

-행정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동목포역은 간이역으로써 일부 학생들의 통학으로는 곤란하며, 또 앞으로 모든 학교가 자꾸 이축되고 있어 현재의 간이역으로는 도저히 편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역으로 승격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동의를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찬동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삼학도공사 기공식 건입니다.

◇鄭應杓의원

-목포의회에서도 참가하여 삼학도공사 기공식준비위원을 본 회의에서 다섯 분 선정해서 행정부와 직접 협력하여 가지고 기공식의 준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섯분에게 일임하고 다섯분 선정할 것을 동의하며, 다섯분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다른 개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각 분과위원장 정도로 하면 어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계획서 배열의 건 입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書記

-설명이 있었음

◇副議長

-잘 아시겠지요  
형식상 의회를 통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주십시오.

◇金昌賢의원

-자리에 앉아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 찬동 가결

◇副議長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이고 시정감사보고를 오후 회의에서 하겠습니까.

오후 회의는 정각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 시간)

(오 후)

◇副議長

-그러면 참석의원 15명으로써 성립되었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세 사람 지명을 사회자에게 일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측 세 사람을 지명하겠습니다.

金南鎭, 李在洪, 李福柱의원, 행정부측 두 사람은 시장님에게 일임합니다.

다음 기공식에 대한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이것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議長님하고 상의한 결과 議長, 副議長, 內務分科委員長 吳世一, 文社委員長 李文吉, 懲戒委員長 林一男 각 의원 다섯분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즉 각 상임분과위원장입니다.

(産業委員長인 金吉煥의원이 빠졌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따를 副字인 副議長 이 빠지지요?

◇李文吉의원

-議長님은 자연 협조하기로 하고 副議長과 상임분과 위원장으로 합시다.

전원 찬동

◇陳福春의원

-만약 위원장이 출타 혹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副議長

-혹시 위원장이 불참시는 소속 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이 나와 주십시오.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金南鎭의원

-에 — 목포는 항구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7,8년전까지도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7,8년이 경과한 오늘날의 목포는 전라남도 4개시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간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에 — 인접 광주시를 보더라도 역시 개인이 잘 살고 못 산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도 그 도시가 확장되고 건전한 시를 만든 것은 우리가 보고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항상 원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 시를 더 확장시킨다는 의도에서 무안군 이로면과 영암군 삼호면을 목포에 편입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노력하였으나 그 지방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오늘날까지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또 타 시의 예를 본다면 편입시키는 수단과 방법에 저희들과 틀리고 저희들이 느낀바 있고 또 저희들 초대 시의원으로써 마땅히 할 일이며, 임기도 최종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무안군 이로면과 영암군 삼호면을 목포시에 편입하는데 여러 가지 의회로써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본 의회의 사무 감사 보고가 끝나고 부의안건이 끝난 다음 즉 제39회 제2차 회의가 끝난 다음 포섭 비밀회의에 들어가서 타시의 예를 비밀회의 끝에 토의하여 영암군 삼호면과 무안군 이로면을 목포시에 편입 시키는 비밀회의로 들어갈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교섭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틀리지 않아요?

※장내 소란

◇副議長

-긴급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회의가 끝난 후 비밀회의로 들어갈 것에 찬성 하신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2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에 따라서 제6회 시정감사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반장 모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金南鎮의원 제1班長

-1반에 속한 본청 각 동의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서무, 공보, 시정, 관재, 지도계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서무, 공보, 시정계는 전반적으로 사무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며, 전 직원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대단히 양호합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관재계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부진하니 가일층 진력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그 다음 호병과에 병사, 호적계인데 과거와 달라서 확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선량한 공무원의 표면으로써 시민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호적부와 제증빙서류에 일반이 허다히 손을 대고 있으니 공사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서류 감독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는 정리부과 징수계인데 표창한 바가 있고 시정할 바가 있으며, 인화적 사무적인 면과 직원의 질적 향상을 시켜야하겠고, 부과계는 어디까지나 공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징수계에 있어서 몇몇 직원의 잘못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1952(4285)년도, 1953(4285)년도 징수에 비교해 본다면 눈부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리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방법과 달리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감사원으로 볼 때 다소간 조건이 있었으나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것으로 믿고 대체적으로 잘 정리 되었습니다.

한가지 부탁할 것은 체납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징세 직원들이 1, 2차 다니다가 본인을 만나지 못 한다면 결말을 짓고 있는데 체납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원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방 출신 시의원들의 그 동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지 1차 문의하고 동장들과 상의하여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정 감사에 있어서 죽교5구동은 대체적으로 잘 하였는데 한가지 부탁할 것은 동정세를 징수하여 가지고 조합에 입금 하는데 있어서 조합의 잔고

를 등에 있는 잔고가 정확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직원에 대한 질적 향상이 요망됩니다.

다음 유달동: 대체적으로 질적 향상이 되어 있었고 문서 처리에 있어서 그 전보다 연구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달동으로서는 금전 처리와 문서 정리에 있어서 타 동의 모범이 됩니다.

대성1구동: 사무적인 모든 계획이 잘 되어 있고 동직원들의 질적인 향상이 되어 있고 동장에 대한 친절을 도모하고 있으니 이러한 동에는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교동: 대체적으로 사무적인 면은 양호하나 동민이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속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죽동: 대체적으로 사무적인 면에 여러 가지 양호한데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동정세 경리 상황이 죽교4구동과 같은 경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 추진력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볼 때 이제야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른 듯 하며, 동이 산뜻합니다.

이번 동정 운영 방법과 과거의 방법을 비교할 때 100%의 능률이 올라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즉 말하자면 동직원의 질적 향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 ◇副議長

-제2반 보고하여 주십시오.

또 1반 의원으로써 부언하실 분 있습니까?

#### ◇金永完의원

- 金南鎭의원외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바는 작년도에 시정 감사를 하여 가지고 시정할 점을 지시한 바 있어서 이번 사무감사시 그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망 하였으나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집행부에서 의결부의 결의를 무시한 까닭입니다.

(형편상 중략)

또 그 다음 인화문제입니다.

물론 시장은 목포시민을 위하여 명령을 한다면 그 부하직원은 일치단결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호남동장을 임명하는데 부시장 의도장이 없고 민원서류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10일이내에 가부간 결정을 하여 회답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를 제출한 후 2,280시간의 장시간이 걸려 가지고서 이 사람이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시간을 걸릴때 일반시민이 제출 하였을 때야 말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국채문제입니다.

전반 의회 때 안받겠다고 언약하여 제7회 국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받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부 직원의 이러한 행동을 간부급에서 조사하여 주시기 요망합니다.

또 하나는 시청 재무과 정리계 문제입니다.

목포시청에서 정리계가 가장 중요한 계입니다.

시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리계 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서는 이 정리계에 대해서 목포시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정리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副議長

-다음 제2반 감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金昌賢의원

-제2반 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나쁜 점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아니라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사무감사를 하여 만분지 1일라고 행정 책임자가 듣기에 거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제2반의 소속은 사회과로써 대체적으로 사회과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재 하는데 있어서 부시장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이 대결을 하고, 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이 대결을 하여서라도 도장을 안 빠져야 할 것인데 도장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노동계는 일은 많은데 지금 주무자 한 사람이 일을 보고 있는데 이 한분으로서 도저히 일을 담당할 수 없으니 직원 배치를 요망한다.

다음 직업소개소인데 이것 무슨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조차 없다.

다음 보건계인데 방역 관계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양호하다.

그런데 물자의 구입이 원활치 못하다.

첫째, 대성병원에 구호물자와 원조물자가 많이 있는데 처리방법이 흐리멍텅하다.

그리고 대성병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방법이 개인의 회사인지 개인 사업체인지 알 수 없으며 물건이 나오고 들어 가는 것은 시장으로써 알아야 할 것인데 시장의 결재 없는 것이 많다.

그리고 재정 관계도 유지 난이다.

다음 청소사업소는 역시 말의사료가 부족해서 제주에서 사올 때는 좋은 말이 여기에 들어만 오면 보리를 먹게된다.

이것은 청소사업소 주임의 태만인지 배급량이 적은지 알 수 없으니 앞으로는 사료 배급을 충분히 하여 줄 것을 요망 한다.

다음 도서관인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보도회하고 같이 있는 것이 폐단이다.

다음 공익전당포인데 이것 개인회사인지 부로카 회사인지 알수 없다.

그래서 전당포라는 감이 나지 않는다.

남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이 한산하다.

그리고 금전 장부 역시 노트로 쓰고 있다.

다음 죽교2구동, 3구동, 무안동, 동명동의 사무 감사를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사무 감사 현계표가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동사무는 잘 되어 있는데 동직원과 타 관공서 직원의 직무 시간을 비교하여 볼 때 집무시간의 한계가 확실치 못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규율을 지키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이 부족하다.

그 다음 교육청 사무 감사 결과 서운타 아니 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월 평균 접대비가 대단히 많다.

또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각 국민학교에 배당한 물품이 학교에는 없는 것이 있고 영수증철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예비비가 유용되어 있으며, 징수 관계를 본다면 미수가 대단히 많으며, 차압 건수가 적으며, 미수기(米收記)를 가지고 보니까 대개가 퇴거자다.

다음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金永完의원께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金永完의원

-감사 결과를 말씀 들이겠습니다.

건축 관계를 본다면 1954(4287)년 8월4일 계약을 체결하여 8월 30일 날 기공식을 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12월 31일 공사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목도 도착되어 있는데 12월 31일이 넘은 후에도 공사 연장계가 없고 설계 변경서나 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교육위원회 회의록 낭독 생략)

또 내용을 본다면 3월 12일 날 공사가 나왔는데 4월 20일 교육청 기사가 검사 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본다면 1954(4287)년 8월 14일 날 계약을 하였는데 650만원의 검사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시멘트가 1,882도대, 목재가 1,500보이르피트, 기와가 00000매이하 누락.

◇副議長

-제2반 감사 의원으로써 부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鄭應杓의원

-방금 저희들이 점심 시간까지도 의원 끼리도 아니고 언론계 기자들도 계신데 제2반의 교육청 감사 보고는 오늘 안될 것이라고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를 한다면 이것으로써 끝난 것인가?

제3자로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李文吉의원

-鄭의원의 말씀 지당한 말입니다.

실은 金永完, 金子洪의원에게 건축관계 감사를 부탁하였으나 오늘 오전까지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점심 시간에 金子洪의원과

金永完의원께서 보고서가 되었다고 하여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李文吉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金慶禧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이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金慶禧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金慶禧의원

-교육청 감사를 하는데 제2반으로서는 사실상 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는 金永完의원과 金子洪의원에게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두분 의원께서 그런 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 후 서로 상의하여 가지고 보고를 하기로 된 것입니다.

◇副議長

-그 외 제2반 의원으로써 부언하실 분 없습니까?

◇金子洪의원

-저는 제2반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영선 관계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 건설과 예산에 비추어 고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계사 하나를 짓는데 7만환이 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비 2,5,000환 정도 밖에 안되며, 이러한 소소한 점에 모순이 있고 또 그 내부를 본다면 어느 정도 잡비 지출이 많아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고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소소한 것이지만 균형을 취하고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십시오.

◇李文吉의원

-제2반 감사 보고에 있어서 각 국민학교의 물자 배부 상황을 본다면 각 학교에서 받고도 영수증이 없고 또 선생님들이 받고도 영수증을 안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 넓이 양해하여 주십시오.

◇副議長

-그외 제2반 말씀 없으시면 제2반은 이것으로써 끝이겠습니다.

다음 제3반 보고하여 주십시오.

◇陳福春의원

-제3반 소관은 산업과로써 산림, 상공, 농림, 수산인데 첫째, 양정계부터 말씀 들이겠습니다.

양정계 사무는 식량과 하곡수집인데 하곡수집에 있어서는 대단히 성의 있는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처리에도 대단히 양호한데 한 가지 느낀 것은 동직원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식량대의 미수가 상당한 숫자에 달합니다.

산업과장께서 철저히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공계에 대해서 말씀 들이고자 합니다.

역시 목표는 상공도시인 만큼 상공계의 눈부신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공계라고 하여 가지고 다른 부분보다 미약합니다.

그 예를 들면 공설시장에서 상공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공계에서는 하등의 연락도 없이 직접 상관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상공계라고 하면 목포발전에 기여한바 커야 할 것인데 이와같은 예산으로서 민활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앞으로 상공계의 예산을 많이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계입니다. 수산계 역시 상공계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석화 양식장 시설 지도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산 편성시는 여기에 주관을 두어 주십시오.

다음은 도살장 관계입니다.

여기 역시 작년도에 비교하여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세고 하였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징수에 비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 관계입니다.

죽교동 시장은 시장의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와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는데 이것 시장주임의 활동이 부족한 탓인가 합니다.

남교동시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시장으로써 시장내에 저축계가 있어 가지고 그 활동이 대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찬양이 있기 바랍니다.

다음 연동시장입니다.

대의적으로는 빈번하나 내부적으로 본다면 장소가 좁아서 대단히 곤란 하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시장을 확장한다면 남교동 시장에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사무 감사로써 서산동, 산정1, 2동, 용당동, 영해동을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그런데 동직원과 동장간의 유기적인 활동을 요망한다.

한가지 특히 부탁할 것은 시에서는 동 고문을 추대 하였는데 일부 동에는 고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정도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타 동에는 동 고문을 비롯하여 반장명표까지 붙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동 고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도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 당초 고문을 추대한 취지에 배치 되지 않는가?

이 점 잘하여 줄 것을 요망 합니다.

동에서는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기는 하지만 동으로써 시에서 전달하는 사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님의 일도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전연 비어 놓아서 동민들이 일을 보러 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니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동장은 사무소를 지키면서 동민들이 어떤 일이던지 보러 오면 곧 봐줄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기 바란다.

앞으로 공무원의 생활 개선이 된다면 당국에서는 이 점 충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지금 제 3반 의원의 보고가 끝났는데 제3반 소속 의원으로써 부언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반 보고는 이것으로써 끝이 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제 4반 보고하여 주십시오.

◇鄭應杓의원

- 제4반 담당은 건설과로써 수도계만을 본 의원이 보고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목포시는 급수난으로 대단한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 실정을 파악하고 급수 행정을 검토 하였으니 제가 말씀 하  
겠습니다.  
수도계에서는 금년도에 들어가서 74건이라는 신설, 개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내용을 본다면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점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수도시설되어 있는 내용을 본다면 호남동이 69개소,  
무안동169개소, 영해동 259개소, 만호동 170개소, 향동 200개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교1, 2, 3, 4, 5구동 합해서 수도가 48개소, 있습니다.  
또 산정 1, 2, 3구동에 56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사무 감사시 이것을 시  
정하여 달라는 요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74건 중에는 1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권계급이나 친척에게 해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 공사를 하는데는 허가가 나면 시금고에 입금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수도계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74건 중 첫 장에는 공사  
대장에는 시금고에 입금한 것으로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회계대장에는 들어  
오지 않는가 영수증을 가지고 주무자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 공사를 하였  
으며, 금액은 8,900만원입니다.  
이러한 믿지 못할 시 금고에다가 시 수입을 맡겨서 우리가 일을 하 수 있을  
것인지 우려 됩니다.

◇金子洪의원

- 鄭의원께서 건설과 수도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리계와 도시계에 대해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것 대체로 1, 2년 전에 비추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건설과장의 노력으로 포장도로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면으로 본다면 대단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도시계로 말하자면 직원의 부족으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공부도 필요 합니다.

(장내 소란)

또 무허가 건축물이 많으니 여기에 성의를 갖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중에 金南鎭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연동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목포시의세가지 계획에 위반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 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도선장 관계는 明의원께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관계로 들어가서 양동입니다.

동직원의 인화가 잘 되어 있으며, 모든 문서 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남교동 역시 모든 문서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성동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교1구동 역시 노(老)동장 민활한 활동으로써 잘 되어 있습니다.

산정3구동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副議長

-제4반 부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明南喆의원

-일반회계와 도선장 관계 말씀 들이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이 도선장에 수입이 많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만큼한 일반 회계에 수입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유류를 구입하는 방도가 막연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도 상공계에서 상당한 티켓을 끊어 왔는데 이 티켓은 전부 河東鉉市長 명의로 나갔는데 실지 사용하는 유류는 전부 암거래를 하여 훨씬 고가를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티켓을 가지고 정당한 구입과 정당한 지출을 요망합니다.

세세한 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副議長

-그 외 하실 분 없습니까?

◇金永完의원

-판자집 철거 관계로 목포시민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시민들이 집을 수리하고 새로 짓고 하는데 건설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 1건을 가지고 수 십일이 걸려도 확실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저도 한번 건설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3일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을 가니까 이렇게 하여야 돼요. 저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적으로 돈하고 서류하고를 맡겨 놓고 10월 20일 기다려도 1개월이 되어도 안 나와요.  
법규에는 민원 서류는 1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것은 건설과가 아니라 파괴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후 서류를 찾아 가지고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지가 민원 서류를 접수하면 자기 서랍에 1개월 이상 넣어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는 제7회 국채를 받고 있는데 만약 이 문제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운동 하겠습니다.

◇吳世一의원

-지금 金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부에서 무슨 애로가 있어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행정부에 말씀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

-결국은 질의 응답으로 들어 가는데 질의 응답을 하게 된다면 1, 2건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보고로써 끝나치고 다음 회의 때 합시다.

◇鄭應杓의원

-대체로 시정 감사는 보고로써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면으로 요망 사항을 제출하고 행정부로서도 요망 사항이 있을 것이니 오늘 회의는 끝나치면 지금 이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부에서도 처리해 가지고 그 결과를 15일 후에 본 회의에 보고할 것이며, 그 때 본 회의

에서 시정 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본 회의를 개최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면 16일날 대 행정부 질의 응답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 보고로써 오늘 회의는 끝마치겠습니다.

※ 감사 총평 생략

※ 폐회식 거행

◇ 李小圭 副議長

-사무감사 총평 전문

대단히 왜람하고 죄송하지만 감사 총평을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로써 대체적인 사무감사의 강평이라기 보다도 사무감사는 행정부를 좀 협조하고 돕는 것이 사무감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가 시청내의 간부의 융화문제, 간부와 의회와의 소원 등 여러 가지 감정 문제의 발로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市長과 市議會와의 사이가 좋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혼연 일체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건설적인 면에서 시정할 점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절실히 느낀바는 副市長과 課長, 課長과 課長 관계를 본다면 좀 좋아 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總務課長은 總務課長대로 내가 나의 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있는대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 아니냐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 왔다 하더라도 과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혼연히 그런 심정이 없어 졌습니다.



또 시장과 부시장의 사이도 좋아졌고 또 총무과장이 다른 과장의 주간을 무시한다 하여 가지고 다른 과장들이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 과장들은 너도 과장 나도 과장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점도 많이 좋아 졌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으로써 느낀바는 건방진 말일는지 모르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써 의무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은 그 직장의 비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써 어디까지나 공무의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인데 청내의 비밀을 갔다가 만약 청 외인과 필요 이상의 친밀한 연락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초래해서 시비곡절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건설적인 면에 두뇌를 써야 할 것인데 그런 불미한 일로서 허무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까지 3년 유여를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건설적인 면에서 시 행정부를 협조하고 시민을 위하여 행정부를 협조 하였는가 하면 실지가 말이지 저 개인으로서는 무엇을 했다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임기나마 행정부에 협조할 각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로서도 어떠한 정치적인 무엇을 떠나서 많은 협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여기에 부합 되지는 않습니다 만은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국가민족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주간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국가민족을 위한 심정이 다른 까닭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여당만이 애국자가 아니고 여당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당이라고 해서 공산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한다는 심정을 버리고 공평하게 공무는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써 자기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최악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와 의결부가 좀 더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건설적인 사업 하나라도 목포에 가질가 해서 몇몇가지 느낀바를 사무 감사의 강평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제3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제3차)

1. 일 시: 1955(4288)년 8월 16일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11명

朴贊圭, 明南喆, 金子洪, 李福柱, 金三星, 孫白洙, 金八用, 金昌賢,  
金永完, 鄭應杓, 金南鎭

2. 불참의원:10명

李小圭, 吳世一, 陳福春, 金京炫, 金慶禧, 李在洪, 林一男, 李文吉,  
文宅鎬, 金吉煥

4. 개회선언:議長

(오전 11시 30분)

5. 부의안건:

※ 당면한 판자집 철거 대상자에 대한 구호의 건

◇金永完의원

-과거 판자집 철거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방침이 어떠한 방침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안을 취할 것인가?

당면한 문제는 제일로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거를 단행하면 우선 대지 문제도 필요하다.

그리고 계몽 선전 방안은 어떠하며, 철거는 주동체가 어디냐?

◇金昌賢의원

-과거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고 있어 회의시 과반수가 안되어도 비공식으로 회의도 한바 있었다.

우선 구호방침으로서 역전부터 오포산을 한계로 서남으로 양단하여 기금을 수집하였는데 남부에서도 현금 약 6만원, 천독근씨로부터 견직물이 10필, 김문옥씨로부터 정맥 10가마를 기부 받았는데 그 후 철거 중지로 반송도 하였다.

※오전 11시 40분 陳福春, 金京炫의원 참석

◇市長

-과반에는 서가 주종이고 시에서는 협조 하였으나 금반에는 영장은 시장 명의로 하였으나 서와 합동하여 실시하고 있다.

◇鄭應杓의원

-도지사 및 내무국장으로부터 온 공문 낭독하여 주기 바란다.

◇金永完의원

-과거의 소극적인 소위원회의 활약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그 대상자들은 쌀 2되라도 요구하고 있는 현상이다.

행정부에서는 금명간 해당자 600세대에 미리 양곡을 돌릴 수 없는가?

◇市長

-도에서 1,519명분, 석수로 하면 130석이 왔는데 부족하여 150석을 더 준비하여 함께 280석, 목재는 1세대에 기둥 1개 정도 할당될 것이다.

계몽에 있어서는 2, 3일 전부터 일일이 돌아 다니고 있다.

◇陳福春의원

-각 의원이 합심하여 철거에 원만을 기하도록 하자.

◇金永完의원

-거시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현 각 반장의 조직계를 이용하여(시, 동, 반

장) 의원이 참석(각 동을 담당) 기금 수집에 환심을 갖도록 설명하자

◇書記 박찬대

-공문 낭독 요청에 의하여 경찰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온 전문과 내무 국장으로부터 각 시장, 군수에게 온 공문 낭독이 있었음

◇金京炫의원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연기할 수는 없는가?

※ 오전 12시 5분 李小圭 副議長 참석

◇金南鎭의원

-철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노상을 방황케 될 것이어니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각 국민학교 교사를 잠시 빌리면 좋다고 생각한다.

◇鄭應杓의원

- ① 시의원(개인)의 성의로서 일당 비용을 기증할 것과
- ② 각 출신 동별로 최대한도 기금을 수집하려 이 시간부터 활약할 것과
- ③ 금품 수집을 하기 위하여 양일간 휴회하고 19일 본 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이에 수반하여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대상자들에게 편리한 장소 문제가 생길 것이니 그 사람들이 방황 않도록 대지와 장소는 시장에게 일임한다.

표결 결과 재석 14명 전원 찬동 가결

◇議長

-회의록 서명에 金南鎭, 金子洪의원을 지명

◇폐회선언

-議長

(오전 12시 4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8월 16일

議長:朴 贊 圭

議員:金 南 鎭

” :金 子 洪

作成者 書記:洪 南 植

## 제3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제4차)

1. 일 시: 1955(4288)년 8월 19일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회의성립:

1. 참석의원:11명

朴贊圭, 明南喆, 陳福春, 林一男, 鄭應杓, 李文吉, 金三星, 金慶禧,  
金永完, 李在洪, 金子洪

2. 불참의원:10명

金昌賢, 金南鎭, 金京炫, 文宅鎬, 金吉煥, 金八用, 孫白洙, 李小圭,  
李福柱, 吳世一

3. 출석한 공무원:

市長 및 各 課長, 教育監

4. 개회선언

議長

(오전 11시)

5. 보고사항:

1. 제39회 제2차 회의록 낭독 통과

2. 제39회 제3차 회의록 낭독 통과

※ 오전 11시 35분 金昌賢, 金慶禧의원 참석

### 3. 동목포역 승격에 관한 건의 상황 보고

#### ◇議長

- 본 건 철도국장과 교섭하였던 결과 국장님이 대단히 호감을 가져 금년 9월에 다시역이 보통역으로 승격함에 있어 10월부터서는 동목포역을 보통역으로 승격시키는데 적극적 활약을 하였다는 교섭 결과 보고가 있었음

### 4. 징계위원회 조사 보고

#### ◇林一男 징계위원장

- 본 건 조사한바 당시 의원 의원과 죽교4구동장 건의 문제에 있어 金子洪 의원은 동민의 복리 추진을 위하여 동사무소 이축을 상의키 위하여 반장 회의를 소집 요구 하였던바 당시 동장에게 일축을 당할뿐더러 경찰서에 밀회(무허가 집회)라 하여 고발을 함은 동장으로서 부당한 처사며 반장 소집은 시의원 아닌 개인으로서 동민을 위한 것이라면 동장은 협조를 당연 하여야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金子洪의원의 한 일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일로 봐진다.

※ 오전 11시 40분 金京炫의원 참석

#### ◇鄭應杓의원

-본 보고에 접하여 즐거운 감이 있다.

당초 5인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실에 대하여 죽교4구동장을 파면키로 하였는데 그대로 있음은 시민이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 5. 교통사고 방지 추진 위원회 결과 보고에 이어

#### ◇金南鎭의원

-본 건 일반 도로로 하는데 계속 추진하되 시장, 서장회의하여 국장에게 교섭키로 추진 위원회에서 3명이 상광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표결 결과 재석 14명 전원 가결

◇金南鎭의원

-행정부로서는 죽교4구동장 결의 사실에 대하여 하등의 제재 없음은 유감이다.

동장 문제는 금월 중 해결하기 바란다.

◇市長

-금일 조사 보고를 하여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 처리 하겠다.

#### 6. 제6회 시정 감사 보고

◇市長

-시정을 위하여 장일간 노력하여 주신 각 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포함과 아울러 지적하신 제 부문에 대하여는 개선 시정 또는 불비된 점에 있어서는 보완토록 각별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끝난 후 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음

◇金永完의원

-본 사무 감사에 있어 추가 질의가 다음과 같이 있었음

거반 감사시 처리요망 서류의제시(제무과)

과장, 계장의 사무인계 서류의 불비

#### 7. 독촉료 징수에 대하여

(가) 독촉료를 안받는 이유

(나) 징수(독촉료) 불공평한 이유

#### 8. 차압의 불공평한 이유



9. 결손 처분에 있어 성립조건이 구비 안됨에도 불구하고 결손한 이유

10. 법치 국가에 있어 제7회 국채가 발행 안됨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통첩이라 하여 첨가 소화한 이유(총무과)

11. 호남동장의임명에 있어 부시장결재를 안한 이유

※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재무과장으로부터 각 각 답변이 있었음

◇陳福春의원

-하절 뇌염이 발생하고 있는 전시하 수도준설공사예산이 있어 다행이나 조속 실시를 요망한다.

정호(식수용)도 불결로 위함하니 조속 소독을 요망하며, 정호水를 확보할 수 없는가?

◇金永完의원

-축산 장려는 양호하나 작년에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부 죽었는데 금년에는 이에 대비하여 지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 이에 이어 산업과장 박연태, 사회과장 윤주석으로부터 신설 정호 및 소독 계획과 전염병 예방 관계로 금명간 조속 실시 위계 중 이라는 발언 답변이 있었음

◇鄭應杓의원

-당시 축산계장으로부터 근무태도를 보건데 인원부족으로 사무 추진이 불여의 하다는 답변과 차이가 있다.

단지 개인의 수지만 보고 출근한 사람이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이탈될 행위를 하고 있다.

즉, 우피 1매에 1,000환식을 중간 착취하고 있다.

또 도살에 있어 새끼뺨 소와 새끼 안뺨 소의 구별 없이 도살을 하고 있다.

종합컨대 1월 수입이 5, 6만원이니 간부는 알고도 방치 하는가? 모르고 방치 하는가?

여기에 대한 차후 대책 여하?

오물 소제 수수료는 받아가도 혜택을 못본지가 허다하니 원할을 기하도록 방안책 여하?

◇産業課長

-즉시 진상 조사하여 상사에게 보고 하겠다.

◇社會科長

-현상 유지에 급급하니 조례를 개정 인상하여 추력 및 마차 등을 구입한다던지 일반경비를 돌려 주기 전에는 곤란한 문제다.

◇金子洪의원

-수도 공부 및 도로 공부가 필요한데 대책 여하?

◇市長

-고려 하겠다.

지금 쓰레기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는 기백명도 부족하니 차제 특히 시민의 협조만이 필요하다.

수도요금 에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자는 바꾸겠다.

◇陳福春의원

-저수지에는 물이 포화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서산동, 유달동 일부는 물이 여의치 못하니 건설과장으로써 파괴수전이 몇 군데이며, 직접 직원을 시켜서 조사해 본 일은 있는가?

무능하는 처사하고 보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란다.

◇市長 河東賢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이며, 과반 오전 6시를 기하여 전 청원 실시 조사도 하겠다.

앞으로는 조사를 거듭하여 균일한 수도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金昌賢의원

-감사로서 폐지 요망 및 동명동 공동변소 문제 등 고려함을 바란다.

◇金三星의원

-목포시 시정 감사는 종결하고 교육청 관계 질의가 있으면 오후 속개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석 14명 전원 가결

◇회의선언 -議長

(오전 12시 30분)

◇속개선언 -議長

(오후 1시 45분)

※ 陳福春, 李文吉의원 휴회 중 퇴석

◇金南鎭의원

-목포시 공익전당포 운영자금 기채 및 시 금고 출장직원의 비행에 있어 비밀회의를 개최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3청)

표결 결과 재석 13명 중 가 10명 가결

◇휴회선언:議長 (오후 3시 15분 성원 미달로 15분간 휴회할 것을 선언)

◇속개선언:議長

(오후 3시 30분)

◇金昌賢의원

- ① 과반 시정감사시 작발된 부정사실과

② 천만환 기채(대부)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 되었다는 것은 시정에 협조하여야만 시 금고로서 무의미 함으로 목포시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이관 하도록 시장님에게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議長

-투표방식은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되 감표의원으로는 金永完, 金南鎭의원을 지명

표결 결과 재석 12명 중 가 11표 기권 1표, 가결

◇教育監

-목포시 교육청 사무감사 전말보고 및 설명 요지가 있었음

◇金昌賢의원

-사친회비 징수에 있어 면제대상자 아동명단을 각 학급별로 발표할 수 없는가?

◇教育監

-발표 하겠다.

◇의원

-예산항목을 무시한 비용지출은 부당하다.

즉 국민학교비로 지불하고 교육청 소모품을 구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며, 교육청서 할당한 수배수량과 학교와는 차이가 있어 안될 일이다.

◇教育監

-앞으로는 철저한 주의 하겠다.

◇金永完의원

- 감사시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는 교육감답변이 부당함으로 다시 답변서를 요구 하겠다.

(제6회 시정 감사 질의 및 요망 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제7항부터 15항까지)

◇金京炫의원

-교육청 질의는 종결하고 부의안건에 들어갈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석 11명 중 가 9표 가결

6. 부의안건:

1. 목포시 공익전당포 운영자금 지채의 건

◇明南喆의원

-본 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표결 결과 재석 11명 전원 가결

◇總務課長

-인구 통계비에 있어 보조금이 근일간 내시가 있을 것이니 차기 추가경정  
승인을 얻기로 하고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이어  
표결 결과 재석 11명 전원 가결

◇議長

-회의록 서명에 金南鎭, 金子洪의원을 지명

◇議長

-폐회선언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8월 19일

議長:朴 贊 圭

議員:金 南 鎭

” :金 子 洪

作成者 書記:洪 南 植